

소설 <고양이 요람>에 나타나는 종교관과
그에 비춰본 기업가 정신

고우중 (jstrane@gmail.com)

2010년 2월 6일

차례

제 1 절	시작하면서	1
제 2 절	소설 <고양이 요람>	2
2.1	보코논교 그리고 포마	2
2.2	세계의 종말	3
제 3 절	인간성에 기반한 성스러움	5
3.1	기업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5
3.2	기업가 정신과 믿음	5
제 4 절	마치면서	5

제 1 절 시작하면서

이 보고서는 종교와 관련된 어느 대학 강의의 보고서입니다. ‘현대의 문화에는 어떠한 성스러움이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커트 보네거트(Kurt Vonnegut, Jr.)의 소설 <고양이 요람>(Cat’s Cradle, 1963)¹에 나타나는 가상의 종교인 보코논교(Bokononism)와 인류에 의해 초래되는 세계의 종말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코논교의 경전인 보코논서(The Books of Bokonon)와 소설 내의 세계의 종말을 통해 작가의 종교관과 인간성(Humanity)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기업 문화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수정사항 여기서 공개한 버전에서는 소설 <고양이 요람>과 관련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의 특성상 제 3절은 많은 논리적 비약과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객관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서평 부분만 공개합니다.

¹ 커트 보네거트 지음, 박용희 옮김, 고양이 요람, 아이필드, 2004

제 2 절 소설 <고양이 요람>

소설 <고양이 요람>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펠릭스 호니커 박사는 원자탄의 아버지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뛰어난 과학자이지만 과학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비인간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진흙²을 없애달라”는 해병대 장군의 요청에 따라 아이스-나인(ice-nine)이란 모든 물을 상온에서 얼려버리는 화학물질을 만들고 자신의 세 명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주인공은 <세상이 끝난 날>이란 제목의 원자탄 개발 과정과 관련된 책을 쓰기 위해 호니커 박사의 흔적을 추적하던 중 아이스-나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마침내 그것에 의해 인류가 최후의 날을 맞게 되는 사건에 개입하게 되며 이를 서술합니다.

카리브 해의 가상의 섬 산 로렌조(San Lorenzo)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적인 모든 의무에 대해 무관심한 과학자 호니커 박사와 그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세계의 종말로 이어지는지 꽤나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2.1 보코논교 그리고 포마

이 소설의 주된 배경이자 인류의 종말이 진행되는 장소는 카리브 해의 가상의 섬 산 로렌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쓸모가 없어서 옛날부터 여러번 주인이 바뀌었던 나라입니다.

보코논과 미 해병대 탈영병인 얼 매케이브는 항해 중에 난파되어 우연히 산 로렌조로 떠밀려 오게됩니다. 그들은 우주공산이었던 산 로렌조를 손쉽게 장악하고 그들의 이상에 맞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매케이브는 정치와 경제 제도를 바꾸고 보코논은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들도 산 로렌조를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코논은 매케이브에게 자신과 자신의 종교를 금지하고 박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가난으로 인한 비참함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케이브와 보코논은 각각 폭군과 박해받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극을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작중 인물의 언급을 통해 명확히 나타납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개혁도 국민들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 종교는 유일한 희망의 도구가 되었소. 진실은 사람들의 적이었소. 진실이 워낙 끔찍했기 때문이오. 그래서 보코논은 사람들에게 더욱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지.”³

이러한 무해한 거짓말은 소설 내에서 포마라고 불리우며 보코논교의 경전인 보코논 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²보코논서에 의하면 신이 인간을 빛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분히 중의적입니다.

³p.159

보코논서의 맨 첫장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바보가 되지 말라! 당장 이 책을 닫으라! 이 책은 포마일 뿐이다!”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감하고 친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포마에 의지해 살아라.”⁵

이러한 것들에서 작가는 종교를 “무해한 거짓말”로, 그리고 인간이 용감하고 친절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질려면 의지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거짓말을 할 절실한 필연성과 현실에 대해 거짓말 하는 것의 가슴 아픈 불가능성”⁶을 작가는 산 로렌조라는 가상의 국가를 통해 소설 전반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강의를 수강하기 전이라 종교에 관해서는 거의 개념이 없을 때였지만, 그래도 저 역시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짧고 잔인하고 하잘 것 없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었소.”⁷라고 쓰게 자조하는 작가의 말처럼, 그리고 장 그르니에가 <섬>에서 세계는 헛되기 이전에 이미 비어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세계의 무목적성에 대치되는 인간의 이성은 정벌에 가깝다는 것을 말입니다.⁸

그러한 비어있음에 대한 대안으로써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차갑지만 따스한 손을 사람들에게 내밀는다. “인생은 짧고 잔인하고 하잘 것 없는 것”이지만 무해한 거짓말에 의지해서 용감하고 친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종교 경전의 내용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과 상관없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어쩌면 옛부터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2 세계의 종말

인간은 오래전부터 태초에 자신들을 창조하였고 언제든 파멸시킬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그에 따르는 종교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과학 기술을 통해 종말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이 종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성이 상실된 과학 기술과 문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현실에서 그런 큰 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지,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이 어떤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를 자각하게 합니다.

⁴p.244

⁵p.1, 보코논서 1:5

⁶p.262

⁷p.161

⁸이는 뒤에 보코논서의 창세기 신화에서도 잘 나타나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냉소와 풍자, 블랙 유머로 점철된 그의 작품을 인간에 대한 실망과 자조적인 쓴웃음으로만 보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내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들, 상원의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책은 써서 무얼 하나 하고 나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교편을 잡아보니까, 아주 좋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장성이나 상원의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두뇌를 인간성으로 중독시키자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커트 보네거트 <뉴욕 타임스 북리뷰>에서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현실을 단순히 비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작품들으로써 사람들을 인간성으로 중독시켜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가 걱정했던 대표적인 예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펠릭스 호니커 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또 아이스-나인이라는 가공할 물질도 만드는, 평생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도 가진 적 없는 ‘병적 인격(psychopathic personality)’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그를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처음 원자폭탄을 시험하던 날, 폭탄이 터진 뒤 한 과학자가 박사를 돌아보며 “과학이 이제 죄를 알게 되었군.” 하고 말하자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죄가 뭐죠?”

그리고 호니커 박사에게 대한 또다른 묘사에서 작가는 그 저변에 깔린 문제 의식을 살며시 내비칩니다.

“이따금 그가 죽은 채로 태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 있는 것들에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은 만난 적이 없소. 가끔 나는 그것이 바로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돌처럼 차갑게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말이오.”⁹

물론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도시 전체를 무차별 폭격하여 대량 학살했던 드레스덴 폭격을 실제로 체험한 작가가 한 인터뷰라고 보기엔 순진해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중에 한 비열한 사업가의 입을 빌어 이렇게 냉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로렌조는 상황이 더 나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럴 거란 걸 너무나 잘 알지. 저 아래 있는 놈들은 상식이 통할만큼 충분히 가난하고 충분히 겁쟁이고 충분히 무식하거든.”

⁹p.67

제 3 절 인간성에 기반한 성스러움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변한 현대에 종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적어도 이제는 신이 인류를 멸망시킬까봐 두려워했던 것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두려워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이제 신성(Divinity)만큼이나 인간성(Humanity)에도 일부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 새로운 영성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과 연관하여 이 영성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개인의 행복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3.1 기업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삭제¹⁰

3.2 기업가 정신과 믿음

삭제

제 4 절 마치면서

소설 <고양이 요람>에 등장하는 보코논교는 얼핏 보면 냉소와 풍자로 이루어진 유사 종교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작가는 이 소설의 끝에 보이는 냉소와 풍자, 블랙 유머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비극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가가 현실을 비꼬면서도 동시에 인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에 가까운 힘을 가지게 된 인류는 이제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힘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으로 중독시키는 것은 이러한 인류가 자멸하지 않고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의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성스러움은 옛날과 비교해 그 궤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목적 부재라는 현실의 한계로부터 오는 괴리는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표현한 보코논교의 창세기 신화에 해당하는 보코논서 1권의 맨 첫부분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¹⁰제 1 절을 참고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주적 외로움 속에서 그것을 바라 보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흙으로 생물들을 만들어 그 진흙이 우리가 한 것을 볼 수 있게하자.”

하느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가 인간이었다. 인간 진흙만이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느님은 인간 진흙이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말을 하자 가까이 몸을 기울이셨다. 인간이 눈을 깜빡거렸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공손히 물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야 하느냐?” 하느님이 물으셨다.

“물론입니다.” 인간이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를 생각해보아라.”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셨다.¹¹

¹¹p.244